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드

Global Supply Chain Insight

금주의 공급망 Insight

● 최신 공급망 해외 이슈

【천연가스, 인니】인니 정부, 천연가스(LNG) 수출금지 정책 계획 발표
【석유, 세계】사우디, 하루 100만 배럴 추가 감산 발표, OPEC+도 감산 연장
【암모니아, 러·우】흑해곡물협정 중단위기, 협상 카드로 떠오른 러시아 '암모니아 수출'
【협정, IPEF】IPEF 14개국, 中 견제 공급망 협정 타결
【IRA, 동남아】동남아 국가들, IPEF 통해 美 IRA 핵심광물 원산지 인정 희망
【협약, 미국·EU】마-EU 4차 장관급 무역기술위원회(TTC) 개최, 공동성명 발표
【리튬, 포르투갈】포르투갈, 유럽 최초의 대규모 리튬 광산 개발 일부 허가
【IRA, 미국】美 IRA 보조금 전액 수혜 대상 테슬라 세단 모델3 전 차종 포함
【규제, 미국】美, 對中 수출 승인 요청 4건 중 1건 불허
【반도체, 일본】日 '30년까지 반도체 매출 3배 확대...2나노 개발도 박차

● 공급망 뉴스 더하기

IPEF 장관회의(5.27) 의제별 주요 내용

● 공급망 돋보기

청정에너지 공급망의 국제무역 현황

● 공급망 전문가

EU 배터리 시장에서의 우리 기업의 경쟁력

● 공급망 소식통

KOTRA GMV 2023 수출상담회 안내(~6.30)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Value Chain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최신 공급망 해외 이슈

■ [천연가스, 인니] 인니 정부, 천연가스(LNG) 수출금지 정책 계획 발표

- 5.30일(현지시간) 인니 해양투자조정부장관은 천연가스(LNG)에 대한 수출금지 정책 계획 발표
 - 인니 내 산업증진과 국내 천연가스 공급 안정을 위해 수출금지를 시행할 것을 언급하며, 경제특구 내 석유화학 및 메탄올 산업육성 등 전략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고 추진 배경 설명
- 현재 체결된 수출계약 건은 수출금지 대상이 아니며, 계약 갱신 시 수출금지 추진 예정
 - 인니 해양투자조정부장관은 아직 천연가스(LNG) 수출금지 관련 구체적인 추진 시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며, 대통령 보고 후 세부사항 발표 예정
- 인니는 LNG 전세계 8위 수출국이자, 한국의 6위 수입국으로 가격 상승 및 국내 공급 모니터링 필요
 - '21년 기준 인니의 천연가스(LNG) 수출량은 146억 m^3 으로 가격 급등이 불가피하며, '22년 기준 한국은 LNG 전체 수입량(4,639만 톤) 중 7%(323만 톤)를 인니에서 수입하고 있어 국내 LNG 공급 모니터링 필요 (출처: Statista, 한국무역협회)

출처: KOTRA 자카르타무역관 종합

■ [석유, 세계] 사우디, 하루 100만 배럴 추가 감산 발표, OPEC+도 감산 연장

- 6.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압둘아지즈 빈 살만 사우디 에너지장관은 OPEC+ 정례 장관급 회의에서 사우디는 7월부터 추가적으로 하루 원유 생산량을 기존 1,000만 배럴 → 900만 배럴로 감산하겠다고 발표
 - '23.4월 50만 배럴 자발적 감산 이후 추가적으로 대폭 감산에 나선 것으로,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참이었던 '21.6월 이후 최저 수준
- OPEC+ 회원국들도 세계 원유 시장 안정을 위해 '23년 말까지였던 감축 기간을 '24년 말까지 연장 결정
 - OPEC+는 사우디 등 석유수출기구(OPEC) 14개국과 러시아 등 비(非) OPEC 산유국 10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2.10월 200만 배럴 감산 합의, '23.4월 일부 회원국들이 자발적으로 160만 배럴 추가 감산을 발표한 바 있음
 - 다만, 사우디가 희망했던 OPEC+ 24개국 전체 회원국의 일괄적인 추가 감산 합의는 OPEC+ 정례회의에서 다른 산유국들의 반발로 무산
 - * 앙골라와 나이지리아는 코로나19 확산과 수년간의 시설 투자 부족으로 원유 판매 수익이 급락한 상황에서 사우디의 무리한 감산 요구 비판

출처: 블룸버그통신('23.06.04), 조선일보('23.06.06) 등 언론보도 KOTRA 종합

[암모니아, 러·우] 흑해곡물협정 중단위기, 협상 카드로 떠오른 러시아 '암모니아 수출'

- 5.3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유엔(UN)은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로 러시아 암모니아 수출에 물꼬를 터주는 방안을 제안
 - 러시아는 전 세계 비료의 13%에 해당하는 약 5천만 톤을 생산·수출해왔던 비료 생산 대국으로 화학 비료의 원료로 쓰이는 암모니아 생산과 수출 의존도가 높았으나, 러·우 사태 이후 수출로가 막혀 상당한 지장을 겪어옴
 - 유엔(UN)은 우크라이나·튀르키예·러시아에 우크라이나 항구에서 막힌 러시아산 암모니아를 이송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시작할 것을 제안
- 이전부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흑해곡물협정 이행을 비이성적으로 제한했다고 비판하는 반면, 러시아는 이를 부인하며 우크라이나 항구를 통한 암모니아 수출 재개를 촉구해왔음
 - 우크라이나는 자국 파이프라인을 통한 러시아 암모니아 수출을 허용하는 대신 흑해곡물협정의 정상 이행에 관한 러시아와 유엔의 보장을 받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흑해곡물협정이 더 많은 항구·물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면 자국 영토를 통한 러시아 암모니아 수출 재개도 고려할 예정이라고 밝힘

출처: 연합뉴스(23.06.01), 조선비즈(23.06.02) 등 언론보도 KOTRA 종합

[협정, IPEF] IPEF 14개국, 中 견제 공급망 협정 타결

-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는 지난 27일(현지 시간) 출범 이후 1년 만에 공급망 분야 첫 협정에 합의함
 - *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 '22년 5월 미국의 주도 하에 출범된 경제협력체로 중국 견제를 목표로 하며 한국, 미국, 일본, 인도 등 14개의 회원국이 참여 중
- 중국의 반도체·전기차 핵심 소재 무기화 가능성에 대응하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공급망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할 예정임
 - (공급망 위기 대응 네트워크) 공급망 위기 발생 시 대체 공급처와 운송 경로를 개발하고 회원국끼리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비상 소통 채널 가동
 - (공급망 위원회) 각국 정부는 공급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불필요한 조치를 자제하고,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투자확대, 물류개선, 공동 R&D 등을 위하여 노력, 위원회는 각국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협력 방안을 논의
- 인도네시아 등 천연자원이 풍부한 국가들이 협정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동 협정을 통해 우리 기업들은 공급망 다변화 기회를 확보하고 관련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직접적인 압박보다 대중 의존도 축소에 초점이 있는 만큼 실질적인 대중 압박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존재

출처: 동아일보(23.05.29) 등 언론보도 한국무역협회 종합

[IRA, 동남아] 동남아 국가들, IPEF 통해 美 IRA 핵심광물 원산지 인정 희망

- 6.2일(현지시간) 폴리τικο 보도에 따르면, 5.27일 IPEF 장관회의에서 인니·말레이시아·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IPEF 타결 시 자국산 핵심광물도 美 IRA 인센티브 수혜 대상으로 인정해달라고 요청
 - 최근 IPEF 회담에서 아일랑가 하르타토 인니 경제조정장관은 IPEF 장관회의에서 핵심광물협정을 IPEF의 무역 부문에 추가해줄 것을 제안했으며, 다른 일부 동남아 국가들도 지지 의사 표명
- 美 IRA 전기차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리튬, 니켈, 망간, 흑연, 코발트 등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을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조달 필요
 - 미국과 FTA 미체결국인 일본과 별도 핵심광물협정을 체결하고, EU와도 비슷한 협정 추진을 진행하자, 동남아 국가들도 IPEF를 타결하면 미국과 FTA를 체결한 것으로 간주해달라고 요청
- 美 상무부·무역대표부(USTR)는 핵심광물협정이 IPEF 회담의 일부가 될 것인지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며, IRA 인센티브 수혜 여부는 궁극적으로 재무부가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
 - 동남아 국가들의 요구가 관철되면 핵심광물 공급원이 다양해진다는 점에서 한국의 배터리 업계에는 도움이 될 전망으로, 특히 인니는 우리나라와 전략적 협력 중요성이 높은 국가임

출처: 폴리τικο(23.06.01), 연합뉴스(23.06.02) 등 언론보도 KOTRA 워싱턴무역관 종합

[협약, 미국·EU] 미-EU 4차 장관급 무역기술위원회(TTC) 개최, 공동성명 발표

- 5.30일~31일(현지시간) 미-EU 무역기술위원회(TTC) 4차 회의가 스웨덴에서 개최되어 △인공지능, △핵심 광물, △친환경 기술, △청정 공급망 관리, △대중 무역 관계 등 다양한 의제 논의 진행
 - 미국·EU의 관련 분야 장관급 인사 5만*이 의장으로서 주관하며, 4차 회의는 티에리 브레톤 EU 위원(내부시장)이 추가로 참석
 - * (美) 캐서린 타이 USTR 대표, 지나 레이몬드 상무장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EU) 돔브로우스키스 통상담당 집행위원,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경쟁담당 집행위원
- 5.31일 공동성명 발표를 통해 ①신용기술 분야 협력, ②지속가능한 무역·투자 진흥, ③무역·안보·경제 번영 증진, ④디지털 인프라 구축, ⑤디지털 지정학 변화 속 인권 보호 등에서 합의 진전
 - AI 최소 표준 수립을 위한 협력 강화, 대서양 횡단 무역플랫폼 구축, 지속가능한 무역 촉진 등 내용 합의
- 한편, 미-EU 핵심광물협정 관련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 성과를 이루지는 못했으며, 중국발 리스크 관리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EU의 해외투자 규제 수단 도입 관련 논의 추후 진행 전망

★TIP★ 미-EU 무역기술위원회(Trade and Technology Council)란?

- 양국 간 국제 통상, 경제, 기술 부문의 공조 강화 위해 '21.6월 출범한 협의체, 총 5명의 공동의장·10개 실무그룹으로 구성
- 현재까지 총 3차 회의를 통해 양국 간 △디지털 인프라 연결성 강화, △인공지능 등의 기술표준 개발 위한 기술협력, △반도체 공급망 구축, △개방성과 자유 등 중심가치 공유, △지속가능한 무역을 위한 대서양 횡단 이니셔티브, △안보 위한 수출통제 및 투자심사 강화, △양국 간 무역 성장, △디지털 전환 위한 인재 양성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

출처: 월스트리트저널(23.05.30) 등 언론보도 KOTRA 워싱턴·브뤼셀무역관 종합

■ [리튬, 포르투갈] 포르투갈, 유럽 최초의 대규모 리튬 광산 개발 일부 허가

- 영국 광산기업 사바나리소스는 포르투갈* 환경청(APA)으로부터 포르투갈 북부 바로소(Barroso) 광산의 환경영향평가(EIA) 승인을 받아 허가절차 완료까지 최대 1년 소요 전망
 - 포르투갈은 세계 8위의 유럽 최대 리튬 생산국(매장량 6만 톤 추정)으로 기존 세라믹용 리튬 공급에서 EV 배터리용 고품질 리튬 생산으로 전환 추진
 - 사바나리소스는 '26년 중반 첫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연간 전기차 50만 대 분의 리튬을 생산할 계획
- EU 집행위는 핵심원자재법을 통해 전략 프로젝트의 승인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여 원자재 채굴 프로젝트는 2년 내 허가 필요
 - EU는 '30년까지 전기차 배터리 리튬 50% 이상 역내 공급 계획으로, 엄격한 생태계 보호 계획* 하 향후 역내 채굴·정제 프로젝트 허가 가속화 전망
 - * 바로소 광산 프로젝트는 유럽 최초 대규모 리튬광산개발로, 개발사는 '21년 예비 승인 후 개발지역의 초목 및 수자원 보호 계획서 제출을 요청받음

출처: 연합뉴스(23.06.01), 조선일보(23.06.01) 등 언론보도 KOTRA 브뤼셀무역관 종합

■ [IRA, 미국] 美 IRA 보조금 전액 수혜 대상 테슬라 세단 모델3 전 차종 포함

- 6.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테슬라 세단 모델3 전 차종이 美 IRA에서 규정한 보조금 전액인 7,500달러(약 980만원) 수혜 가능 차종에 포함
 - 美 에너지부 홈페이지에 등재된 IRA 보조금 전액 수혜 가능 차종에 테슬라 모델3 기본형, 롱레인지 차종이 추가로 포함됨에 따라, 테슬라 모델3의 전 차종이 보조금 전액 수혜가 가능해짐
- 기존 테슬라 모델 중 보조금 전액 수혜 가능 차종은 △SUV 모델Y 전차종, △모델3 퍼포먼스만 포함되었으나, 모델3 기본형과 롱레인지 모델은 보조금 절반인 3,750달러(약 490만원)만 수혜 가능했음
 - 미국 정부 및 테슬라 측은 이러한 변화와 관련하여 이유를 따로 설명하지는 않았으나, 언론 등 주요 기관에서는 기존 중국산 LFP 배터리를 탑재했던 모델3 기본형 모델이 보조금 대상 충족을 위해 배터리 공급망을 조정했을 가능성 제기
- 테슬라 모델3 전 차종이 보조금 전액 수혜 대상에 포함되면서 미국 일부 지역에서는 도요타 캠리보다 가격이 낮아질 수 있다고 전망
 - 모델3 기본형 가격은 최소 40,240달러(약 5,224만원)로 보조금 수혜 시 32,740달러(약 4,251만원)이 되며,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소득 요건에 따라 최대 7,500달러(약 973만원)의 세금이 환급되면 총 25,240달러(약 3,276만원)에 구입 가능하여 이는 도요타 캠리의 26,320달러(약 3,417만원)보다 낮은 가격

출처: 연합뉴스(23.06.07) 등 언론보도 KOTRA 종합

[규제, 미국] 美, 對中 수출 승인 요청 4건 중 1건 불허

- 지난해 미 상무부에 제출된 **대중 수출 승인 요청** 중 26%가 불허·반려되었다고 지난 3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
 - 테아 로즈먼 켄들러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수출 담당 차관보는 미 상원위원회 청문회 서면 자료를 통해 지난해 총 5,064건의 수출·재수출 승인 요청 중 26%를 불허 혹은 반려하였다고 밝힘
 - 더불어 지난해 중국 관련 수출 요청 처리에 소요된 기간은 평균 90일로, '21년 평균 대비 76일 증가
 - * 중국 외 다른 국가로의 수출 승인에는 평균 43일이 소요됨
- 켄들러 차관보는 “적대국에게 이점을 줄 민감한 미국 기술을 식별하고 보호하기 위한 정책·전략”이라며 반려 배경을 설명함
 -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군사용으로도 활용 가능한 이중용도 품목*의 대중국 수출을 통제하고 있어 해당 물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 반도체, 해양 엔진, 위성, 로켓 시제품 및 관련 첨단 기술 등
 - 또한 바이든 행정부 이래 미 상무부 지정 거래 제한 명단(Entity List)에 200곳 이상의 중국 기업이 추가되어 총 700개의 중국 기업이 미국의 수출 규제를 받고 있음

출처: 이데일리('23.05.31) 등 언론보도 한국무역협회 종합

[반도체, 일본] 日 '30년까지 반도체 매출 3배 확대...2나노 개발도 박차

-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30일 첨단 반도체 기술 개발을 가속화해 '30년까지 관련 매출을 지금의 3배 수준인 15조 엔(약 141조 원)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발표함
 - 동 목표 달성을 위해 향후 10년간 민관 전반에 걸쳐 10조 엔 이상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언급
 - 일본 경제산업성은 동 내용을 골자로 한 구체적인 정책을 7월 중으로 발표할 방침
- 한편 일본은 미국 IBM의 기술을 바탕으로 2나노미터* 반도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 2나노미터 반도체 : 3나노미터 제품에 비해 성능 10% 향상, 소비 전력 20~30% 감축, 전지 수명 증가
 - 일본 라피더스*는 미국 IBM에 기술자 100여명을 보내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기술을 습득하고 있으며 일본 경제산업성은 동 파견을 위해 지난 4월 라피더스에 2,600억 엔의 보조금을 지원함
 - * 라피더스 : 일본 주요 대기업들이 자국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2년 공동으로 설립한 파운드리 법인
 - ** GAA(Gate All Around) : 반도체 회로 선폭 미세화에 따른 전류 누설 방지를 위해 개발된 기술로, 2나노 공정에 필수
 - 라피더스는 '27년부터 2나노 제품을 양산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음

출처: 뉴스1('23.05.30) 등 언론보도 한국무역협회 종합

● 공급망 뉴스 더하기 : IPEF 장관회의(5.27) 의제별 주요 내용

5.27일(현지시간) IPEF 14개국 장관회의가 美 디트로이트에서 개최되었으며, 4대 의제(△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별 논의가 진행되었다. '△공급망' 의제는 IPEF 출범 이래 첫 타결되었으며, 그 외 의제는 구체적 합의에 달하기까지 몇 달 추가 소요될 전망이다. 관련 내용을 알아보자.

■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개요

- 5.27일(현지시간) 美 디트로이트에서 IPEF 장관회의가 개최되어 14개국* 통상장관 참석

*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피지

• 미국 대표단은 지나 레이몬도 상무장관과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를 필두로 IPEF 통상장관 회담* 개최

* '22.12월 호주 브리즈번, '23.3월 인도네시아 발리, '23.5월 싱가포르 회담에 이어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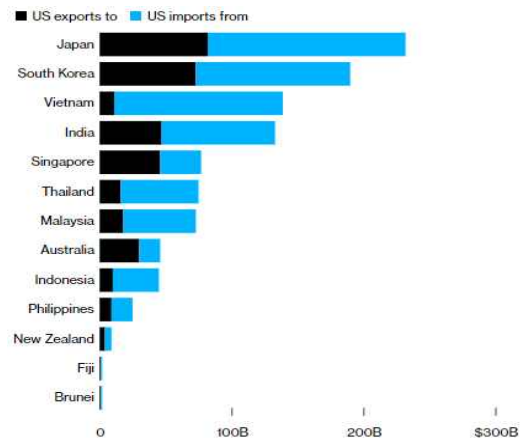
• IPEF 14개 회원국의 '20년 경제규모를 합치면 약 34조 달러로, 전 세계 GDP의 약 41%를 차지, 미국과 회원국 간 교역 순위는 일본>한국>베트남 순

〈IPEF 참여 회원국(총 14개국)〉



[출처] 블룸버그

〈미국과 IPEF 회원국 간 수출입 규모('22년)〉



[출처] CRS, 블룸버그 인용

■ 각 의제별 개요 및 세부 내용

- 4개 의제별(△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회원국 간 협의를 진행하고, 美 상무부는 두 개의 공동보도성명(Press Statement)을 통해 회담 결과 발표

• 첫 번째 의제 '△무역'은 美 무역대표부(USTR)가 주관, 나머지 의제인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는 美 상무부가 주관

〈각 의제별 세부 내용〉

의제	세부 내용
무역 (Trade)	<p>▶ 다양한 무역 규범 정립 관련 협력 의제</p> <p>- 노동 규범 준수 촉진, 친환경·저탄소 교역 강화, 디지털 교역 활성화, 식량안보 대응 및 농업 기술혁신, 통관절차 개선, 공정경제 기틀 마련, 무역원활화, 포용성 강화</p>

공급망 (Supply Chains)	▶ 국제 공급망 병목현상 해결 및 안정화 협력 - 핵심 분야·품목 선정·공유 추진, 핵심 분야·품목의 탄력성 투자 확대,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모니터링·정보공유 체계 마련, 공급망 운송 원활화, 노동권 증진
청정 경제 (Clean Economy)	▶ 파리협정에 기반한 기후변화 공동 대응 강화 - 에너지 안보 협력, 온실가스 배출 감축, 청정에너지 기술개발, 토양·수질·해양 보존 강화, 청정에너지 전환 촉진 등
공정 경제 (Fair Economy)	▶ 교역 투자 확대를 위한 공정한 경제 환경 조성 노력 - 부패 방지, 조세 투명성 강화, 공정성 강화 관련 기술·정책 교류 등

① '공급망' 의제 관련 회의 주요 내용

- IPEF 의제 중 첫 타결되었으며, 공급망을 보다 탄력적이고 경쟁력 있게 만들기 위해 **인력 개발, 공급망 모니터링, 투자 촉진 및 위기 대응** 등에 있어 지속적인 협력 프레임워크 구축 약속
- 위기대응 네트워크(Supply Chain Crisis Response Network) : 특정 분야 또는 품목에서 공급망 위기 발생 시, '위기대응 네트워크'를 가동하여 상호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대체 공급처 파악·운송 경로 발굴 등 협력 방안 모색
- 공급망 위원회(Supply Chain Council) :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투자확대, 물류개선, 공동 R&D 등 공동 노력 강조, '공급망 위원회'를 통해 이행 점검 및 지속 협력
- 노사정 자문기구(Labor Rights Advisory Board) 발족 : 공급망 안정화에 필수적인 숙련 노동자 육성뿐 아니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강조, 관련 현황 파악 및 개선을 위한 '노사정 자문기구' 발족

② 그 외 의제 관련 회의 주요 내용

- 나머지 3개 의제인 '△무역, △청정경제, △공정경제'는 지속 협의를 진행하고, 회의 진전 상황 평가 및 향후 성과 도출 노력 약속에 초점
- 무역(Trade) : 높은 수준의 포용적이고, 자유롭고, 공정하고, 열린 무역 규범에 대한 약속을 확인하고,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성장·발전, 노동자·중소기업(MSME) 등에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협의
 - * 세부 첩터로 ①무역원활화, ②기술지원·경제협력 진전, ③모범규제관행, ④서비스 국내 규제, ⑤농업, ⑥노동, ⑦환경, ⑧디지털 경제, ⑨포용성, ⑩경쟁 구성
- 청정경제(Clean Economy) : △정책과 표준의 연결성 강화, △에너지의 지속가능성 담보, △저탄소·탈탄소 상품과 서비스 사용 촉진 등 청정에너지와 기후 친화적 기술에 대한 R&D·상용화 협력 약속
 - * 탈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핵심 협력 이니셔티브(지역 수소 이니셔티브 등) 발굴 확대
- 공정경제(Fair Economy) : 역내 교역과 투자 촉진을 위해 역량 강화 및 기술지원 관련 협력을 논의하고, 부패 방지·탈세 억제 등 효율적 이행 조치를 논의

■ 현지 반응 및 전망

- 현지 언론, 세계 최소 다자간 형태의 공급망 협정 타결에 주목
 - 美 인사이드트레이드, '세계 최초의 다자간 공급망 협정'이란 점에 주목했으며, 노동 권리 침해 해결을 위한 지속 노력 강조
 - 日 닛케이 통신,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 인터뷰 인용을 통해 이번 협정이 '위기 발생 시 서로 협력·보호하기 위한 틀이 될 것'이라고 보도
- '공급망' 외 다른 의제는 더 많은 의견 수렴이 필요하며, 구체적 합의에 몇 달 추가 소요 전망

공급망 돋보기 : 청정에너지 공급망의 국제무역 현황

화석연료에서 탄소배출이 낮은 기술·연료로 전환하면,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된다. 특히, 청정기술은 핵심광물에 더 많이 의존하며 지리적으로 집중된 특징이 있다. 이런 청정e 공급망의 국제무역 흐름을 살펴보자

〈청정e 공급망 무역 시리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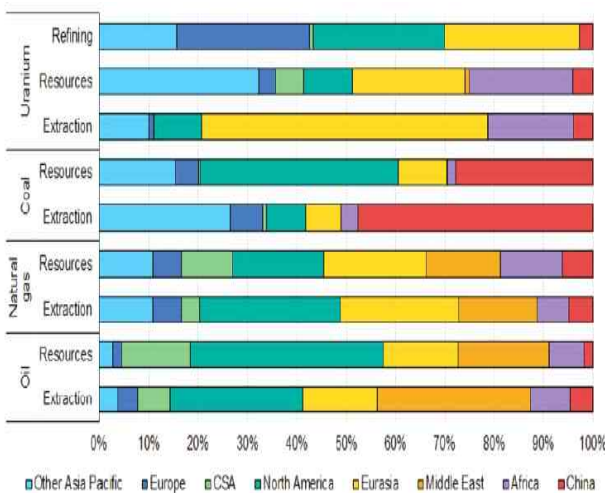
(61호) 국제무역 현황

(62호) 무역수지 분석

■ 청정에너지 공급망의 특징

-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은 화석연료에서 핵심광물로 전환하는 것이며, 청정에너지 공급망은 화석연료 공급망에 비해 지리적으로 더 집중되어 있음
- 현재 핵심광물을 생산하는 국가들은 화석연료 생산국들과 매우 다르며, 화석연료 생산은 북미, 중동, 중국에 집중된 반면, 주요 광물의 채광은 아프리카, 남미, 아태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가공은 중국에 집중
- 리튬·코발트·희토류의 경우, 상위 3개국(칠레, 페루, 중국)이 세계 생산량의 3/4 이상을 담당하며, 세계 백금 수요량(모든 용도)의 70% 이상을 남아프리카가 공급하여 지리적 집중도가 가장 높음
- 구리 광석 생산은 핵심광물 중 가장 지리적 집중도가 낮으며, 전 세계 공급에서 상위 3개국(칠레, 페루, 중국)의 생산 비중이 절반 미만임
- 풍력터빈·원자로·센서에서 사용되는 초합금과 리튬이온 배터리의 핵심 부품인 코발트 광석의 채광 역시 집중도가 높아 콩고가 세계 생산량의 70%를 차지하지만 광산의 대부분이 중국회사 소유임
- 리튬의 경우, 호주와 칠레가 각각 채광의 55%와 25% 이상을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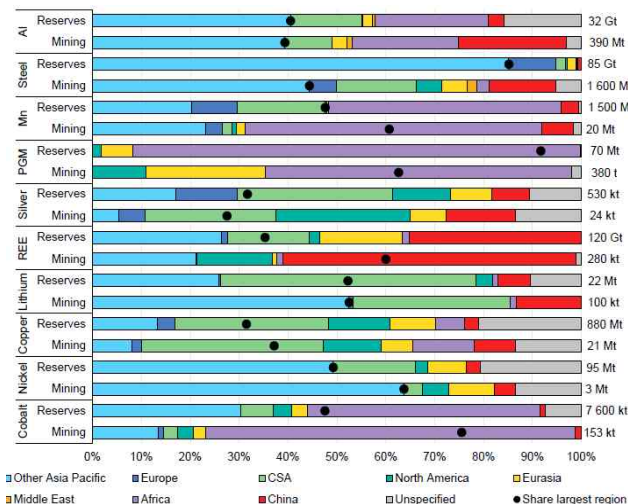
〈화석연료의 지역별 자원 및 생산(21년 기준)〉



주 : CSA는 중남미

자료 : IEA(2023)

〈핵심광물의 지역별 매장량 및 생산량(21년 기준)〉



■ 청정에너지 공급망의 국제 무역

- 청정에너지 기술에 필요한 주요 자재 생산국과 장비·부품업체들은 주요 화석연료 생산국 및 제조업체들과는 크게 다르므로, 국제무역 흐름도 화석연료 중심의 공급망과는 상이함

① 화석연료의 지역 간 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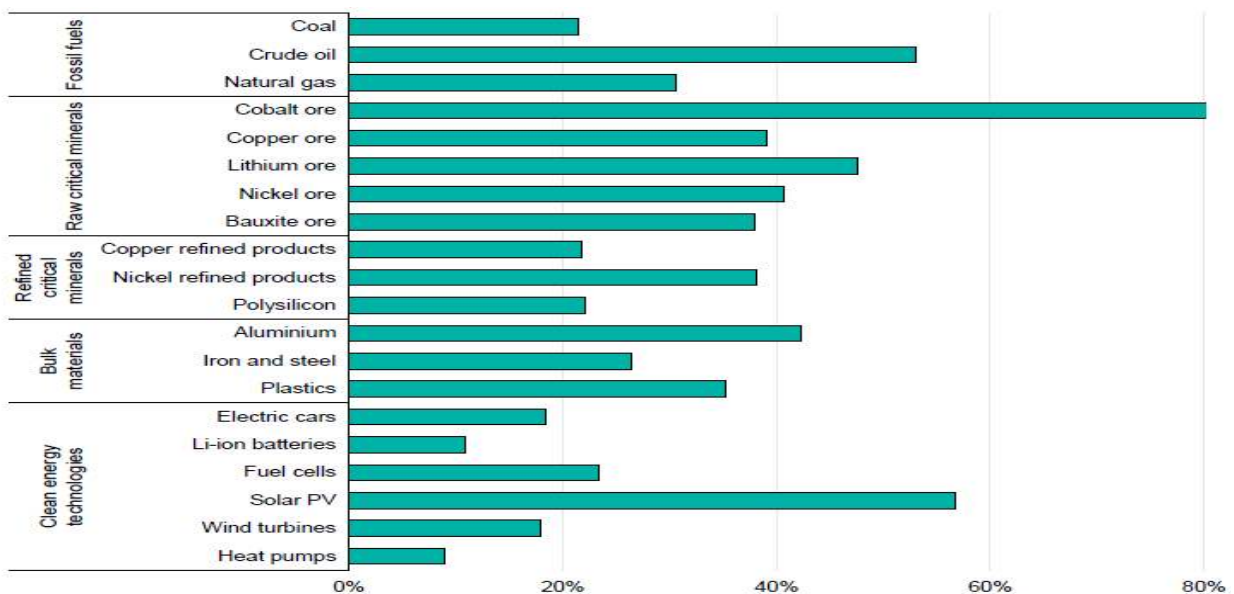
- 원유는 생산량의 절반 이상이 거래되어 화석연료 중에서 무역 비중*이 가장 높으며, 석탄과 천연가스의 무역 비중은 생산량의 20~30% 내외로 높지 않은 편

* 총생산량에서 지역 간(inter-regional) 무역 비중은 총 무역량(총수출입의 평균)을 세계 생산량으로 나누어서 산정

② 핵심광물의 지역 간 무역

- 청정에너지 공급망에서 핵심광물은 화석연료, 핵심·벌크자재, 청정에너지기술 장비 및 제품보다 많이 거래되며, 핵심광물별 무역 비중은 지리적 분포에 따라 다양함
- 코발트는 생산량의 80%, 리튬은 생산량의 50% 미만으로 무역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중국에서 광석들이 정제되고 다른 나라에서 채광한 광석도 중국에서 정제되기 때문임
- 니켈 광석과 구리 광석은 생산량의 약 40%가 무역되며, 이는 채광한 지역 내(intra-regional)에서 정제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임
- 탄산리튬(lithium carbonate), 정제 구리 등의 핵심자재는 생산량에서 무역비중은 일반적으로 낮음
- 다결정 실리콘 역시 지역 간 무역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데, 다결정 실리콘의 생산 및 사용에서 중국에서 대부분 이루어지기 때문임

〈청정에너지 공급망의 지역 간 무역 비중(21년 기준)〉



자료 : IEA(2023)

③ 벌크자재 및 청정e 기술의 지역 간 무역

- 청정에너지 공급망·인프라에 필요한 벌크재료는 보통 25~40%로 거래되어 지역 간 무역 비중이 비교적 낮음
- 벌크재료 중에서 알루미늄과 플라스틱의 무역비중은 40%에 가까운데, 알루미늄은 값싼 전기가 공급되는 곳에서 생산되고 플라스틱은 값싼 석유와 가스가 공급되는 곳에서 생산되기 때문임
- 공급망 하류에 있는 청정에너지 기술·제품은 상대적으로 적게 거래되지만, 태양광발전 모듈은 절반 이상 무역됨

◎ 공급망 전문가 : EU 배터리 시장에서의 우리 기업의 경쟁력

- 김희영·김경훈(2023.5.15.), 「글로벌 배터리의 최대 격전지 EU 배터리 시장 동향과 시사점」, 한국무역협회 보고서 요약

일찍이 EU 배터리 시장에서 진출한 우리 기업은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CATL을 중심으로 한 중국 기업의 약진으로 EU 배터리 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EU배터리 시장에서의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살펴보자.

〈EU 배터리 시장 시리즈〉

(59호) 시장현황과 관련 정책

(60호) 기업 유치전략과 현황

(61호) 우리 기업의 경쟁력

■ 강점(Strength) : K배터리(제조, 소재, 재활용)의 높은 기술 경쟁력

- (1) **배터리** :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은 EU 시장에 경쟁국보다 먼저 진출하여 오랜 시간 기술력을 검증받았음
 - 배터리의 **안정성과 신뢰성**은 전기차의 안전과 직결 → 완성차 기업들은 검증된 배터리 기업을 선호
 - 우리나라는 '17년부터 EU시장에 선제적으로 투자해 '22년 EU시장 점유율이 64%에 달하고 있으며, 주요 완성차 기업과 **폭넓은 제휴 경험** 보유
- (2) **소재** : 에너지 밀도와 주행거리 면에서 우수한 **삼원계(NCM, NCA 등) 양극재** 분야에서 기술력 확보
 - 니켈 비중을 80% 이상으로 높여 에너지 밀도를 높이고 안정성까지 확보한 **하이니켈 양극재** 기술보유
- (3) **재활용** : 폐배터리와 배터리 제조과정 중 발생하는 스크랩을 수거, 분쇄해 중간가공품(블랙매스)을 제조한 뒤 유가금속을 추출하는 **재활용 기술**에서도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평가됨

■ 약점(Weakness) : 대규모 투자를 위한 자금력 부족

- (1) **자금력** : 배터리는 수주산업으로 대규모 투자가 선행되어야 하나, 우리 기업들은 **투자 자금 부족**으로 EU의 배터리 수요 증가에 대응한 신속한 추가 투자가 어려운 상황
 - 우리 기업들은 미국과 EU 지역에 투자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반면, 중국 기업의 경우 IRA 영향으로 미국시장 진출이 어려워지면서 EU 지역에 투자를 집중
 - OEM의 배터리 수주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OEM의 주문에 맞춰 **생산시설을 빠르게 확충할 수 있는 자금동원력이 중요**
 - 공장 건설 및 수율 확보를 위한 시운전 기간 등을 고려할 때 향후 1~2년 내 수주 경쟁의 결과가 5~6년 이후의 시장 점유율을 좌우하게 되므로, **단기적인 자금 조달 능력**이 수주 경쟁의 성패를 좌우할 전망

■ 기회(Opportunity) : EU 내 자체 공급능력 부족 및 공급망 관리 강화

- (1) **(EU 내 공급역량 부족)** EU의 배터리 공급망 중에서도 특히 **△광물 △소재 △장비 △재활용** 분야는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여 성장 가능성이 높음
 - '30년까지 EU 내 예정된 배터리 공장증설 프로젝트에 비해 역내 배터리 **장비업체 수가 매우 적어** 국내 배터리 장비 기업의 진출에 유리한 여건

(2) **(풍부한 재활용 원료)** EU는 전 세계 전기차 판매 2위의 거대 시장으로 LFP배터리를 포함해 폐배터리 물량이 풍부해 재활용 사업에 유리

- 현재 국내외 많이 운영하고 있는 습식공정에 비해 대량 처리가 가능하고 금속회수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건식 재활용기술과 향후 공급량이 더욱 증가할 LFP배터리의 재활용 기술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
- 건식 용융 재활용 기술은 LiB 플레이크(Flake)를 고온의 용융로에 넣어 녹여 각종 유가금속을 포집하는 방식으로 니켈, 코발트, 구리, 망간을 95% 이상 회수할 수 있음. 단, 건식 재활용은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있어 폐수 무방류 시스템 설치 등 ESG적 관점에서의 노력이 필요

(3) **(강화되는 공급망 규제)** EU의 환경, 노동, 재활용 관련 규제 강화는 중국과 경쟁해야 하는 우리나라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

- 탄소배출 저감, 재활용 의무비율 설정, 배터리여권 도입 등 EU의 공급망 관리정책에 대응하고 이를 시장 선점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차별화된 ESG 기준을 내세울 필요성

■ 위협(Threat) : 중국의 공격적 투자와 높은 가격경쟁력

(1) **(중국의 공격적 투자)** 중국 기업들은 막대한 자금력과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EU 시장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가장 큰 위협요인으로 부상

- 중국의 '21년 EU 시장점유율이 22.6%→ '22년 34.0%로 상승한 반면 우리나라는 '21년 70.6%에서 '22년 63.5%로 하락

(2) **(중국의 높은 가격경쟁력)** LFP 배터리에 주력하고 있는 중국은 향후 NCM 분야에서도 부족한 기술력을 가격경쟁력으로 상쇄하면서 EU 내 시장점유율을 높여갈 가능성이 있음

- NCM 배터리보다 20~30% 저렴한 LFP배터리는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및 소형 모빌리티, 저가형 전기차 시장 확대에 힘입어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음
- 중국의 배터리 제조 장비의 평균 가격은 한국의 약 80% 수준으로 배터리 완성품뿐만 아니라 장비시장도 중국 기업이 잠식할 가능성이 높음

Ⅰ EU시장에서의 우리나라 전기차 배터리 기업 SWOT 분석



◎ 공급망 소식통 : KOTRA GMV 2023 수출상담회 안내(~6.30)

■ GMV(Global Mobile Vision) 2023 수출상담회 개요

- ▶ 행 사 명 : GMV(Global Mobile Vision) 2023
- ▶ 일 시 : '23.9.12(화)~13(수)
- ▶ 장 소 :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 (그랜드볼룸 등)
- ▶ 분 야 : Smart SOC 및 ICT융복합 전반
- ▶ 규 모 : (국내기업) 200개사 내외 / (해외바이어) 100개사 내외

■ 프로그램

구분		내용	규모
1	컨퍼런스	▶ 최신 글로벌 ICT 트렌드 및 해외 진출 방향 제시 ▶ 해외 정부 기업 인공지능 활용과 비즈니스 기회	국내기업 및 기관 관계자 300명
2	ICT 산업별 전시관	▶ AI, 클라우드, 스마트팜, 스마트시티, 메타버스 등 주요 ICT 산업별 전시관	10개 산업별 공동관 구성
3	수출상담회	▶ 우리 ICT 기업-글로벌 바이어 비즈니스 상담 ▶ KOTRA 네트워크를 활용한 바이어 유치 지원	국내기업 200개사 해외바이어 100개사
4	글로벌 ICT 프로젝트 세미나	▶ 전자정부, 스마트교통,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분야 글로벌 프로젝트 설명회	국내기업 및 기관 관계자 200명
5	부대행사	▶ MOU 및 계약 체결식 ▶ ICT 스타트업 IR, 네트워킹 행사 등	국내기업 및 기관 10~20개사

■ 참가신청 안내(~6.30)

- 내용 : 글로벌 ICT 분야 바이어·발주처 - 우리기업 간 1:1 오프라인 비즈니스 상담
- 신청 방법 : KOTRA 홈페이지(클릭) → 사업신청 → 'GMV' 검색 → '신청하기' 버튼 클릭
- 참가 비용 : 무료
- 문의처 : KOTRA ICT융복합팀 (☎02-3460-7477 / gmv@kotra.or.kr)

■ 계약·MOU 바이어 초청 신청 안내 (~6.30)

- 내용 : 계약 및 MOU 바이어 초청 및 행사기간 내 계약·MOU 체결식 지원
- 지원 내용 : 바이어 왕복항공임(계약 100%, MOU 50%)*, 지정호텔 숙박 3박 지원 등
* 바이어 국가·지역별 항공임 지원 상한 상이
- 승인 기준 : 계약 미화 50만 달러 이상, MOU 미화 200만 달러 이상의 신청 건 중 KOTRA 본사·무역관 평가를 거쳐 계약 5건, MOU 10건 최종 승인 예정(잠정)
- 신청 방법 : KOTRA 홈페이지(클릭) → 사업신청 → 'GMV' 검색 → 첨부파일 신청 양식 작성 후 gmv@kotra.or.kr로 송부

글로벌 경제지표(23. 6. 7. 수)

[환율]

	'21말	'22말	'23.5말	6/2	6/5	6/7	전일비	22말비
₩/U\$	1,186.30	1,188.80	1,327.20	1,305.70	1,308.10	1,303.80	△0.33	3.11
선물환(NDF, 1월물)	1,186.30	1,190.00	1,323.10	1,303.00	1,306.20	1,301.80	△0.34	2.88
₩/CNY	166.04	186.51	186.31	184.61	183.65	183.00	△0.35	0.86
₩/¥100	1,051.19	1,032.48	951.13	939.06	932.63	936.10	0.37	△1.00
Y/U\$	103.34	115.14	139.54	138.91	140.26	139.28	△0.70	4.15
U\$/EUR	1.2279	1.1318	1.0684	1.0770	1.0691	1.0676	△0.14	0.56
CNY/U\$	6.5305	6.3681	7.0991	7.0727	7.1141	7.1237	0.13	2.31

* '22년 평균 환율: (₩/U\$) 1292.2원, (₩/¥100) 983.8원, '23년 평균 환율('23.1.1~현재): (₩/U\$) 1296.2 (₩/¥100) 969.3원

[유가/원자재] (원유 \$/배럴, 철광석·비철금속 \$/톤)

구 분	'22년 최저(해당일)	'22.12.31	'23.6.5(전일)	'23.6.6	전일비	'22년최저비	'22년말비
원유(두바이)	71.83(12.12일)	78.77	76.41	74.31	△2.1 △2.7%	2.5 3.5%	△4.5 △5.7%
철광석	79.50(10.31일)	117.35	109.00	109.90	0.9 0.8%	30.4 38.2%	△7.4 △6.3%
비 철 금 속	구리	7,000.00(7.15일)	8,387.00	8,265.00	46.0 0.6%	1311.0 18.7%	△76.0 △0.9%
	알루미늄	2,080.00(9.28일)	2,360.50	2,216.00	△44.0 △2.0%	92.0 4.4%	△188.5 △8.0%
	니켈	19,100.00(7.5일)	30,425.00	20,610.00	440.0 2.1%	1950.0 10.2%	△9375.0 △30.8%

[반도체]

	'21	'22	'23.3월	'23.4월	'23.5월	6/2	6/5	6/6	6월(~6)
D램(8G) 현물가(\$, 기간평균)	3.99	3.07	1.71	1.63	1.58	1.52	1.52	1.52	1.52
(%, YoY)	29.9	△23.0	△55.5	△54.8	△53.9	△55.6	△55.6	△55.6	△55.0
낸드(128G) 현물가(\$, 기간평균)	6.55	7.25	6.42	6.40	6.39	6.35	6.35	6.35	6.35
(%, YoY)	14.7	10.7	△18.7	△20.9	△22.6	△22.9	△22.9	△21.1	△20.6

[SCFI(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

구 분	'21.12.31	'22.12.30	'23.5.12	5.19	5.26	6.2	전주비(5.26)	'22년말비
SCFI	5046.66	1107.55	983.241	972.45	983.46	1028.7	4.6%	△7.1%

[BDI(Baltic Dry Index, 발틱운임지수)]

구 분	'21.12.24	'22.12.23	'23.5.19	5.26	6.2	6.5	6.6	전일비(6.5)	'22년말비
BDI	2217	1515	1384	1172	919	939	1016	8.2%	△32.9%



뉴스레터를 만드는 사람들

산업부	산업공급망정책과
한국무역협회(KITA)	김 경 훈
공급망분석팀	김 희 영
	박 가 현
	도 원 빈
	허 슬 비
KOTRA	이 병 옥
글로벌공급망지원팀	신 재 훈
	이 윤 지
	정 다 건
	정 유 진
에너지경제연구원(KEEI)	석 주 현
미래전략연구팀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Value Chain]

문의 산업분석실 (한국무역협회) : gvc_research@kita.or.kr <구독>

공급망모니터링실 (KOTRA) : gvc_monitoring@kotra.or.kr



※ 메일 구독(수신) 신청 :

<https://forms.gle/twC4m3uNTm14t2sR8>

※ 피드백 하러 가기 :

<https://forms.gle/sftFKhLd4Xh49pxu9>

<피드백>



주관기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에너지경제연구원

협력기관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로봇산업협회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비철금속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수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전자산업협회



한국화학산업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회



한국통계정보산업진흥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석유공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